

■ 우리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한국여성의 모습을 전하고 지방해야 할 바를 내걸을 한

■ 개성자해본(場)으로 이틀을 연다(기) 사소재를 제공하심은 동아일보 생활부 로 연마바람(729222) <편지>

혼자사는 제차리편해오

유료양로원 元美玉할머니

을해 었을 때 25대 월남, 서울에서 비 元美玉할머니의 고향은 38 교적 여류인 생활을 하 다 선이북인 咸北城津. 한학 33년전 남원과 사별한데 방을 하던 남원과 함께 6 이어 일대전 외아들마저



미국으로 이민가 버려 지난 88년 7월 국내에서 처음 생 진유료양로원인 裕堂마을 (金鐵道水原市 裕堂동 산 1 91)로 옮겨 노년을 보내 고 있다. 서울의 손녀가 1 년전 결혼, 남원과 딸들을 에 예치, 이자로 충당한다.

자녀만류 뿌리치고 水原 裕堂마을 선택

외로울때 사진첩보며 옛생각

하고 있으나 그곳에 얽혀 사는 것보다 노인들 사 는이 裕堂마을에서의 생 활이 편할것같아 이곳으로 온 것이다.

유성이 달린 2평 남짓한 방엔 조그마한 병창고와 TV 탁상시계가 놓여있고 벽면에는 가족사진들이 걸 려있어 혼자생활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어보였다.

元美玉할머니는 간간히 혈통을 보고싶을때 사진 첩을 뒤집어는게 생활의 즐거움이다.



이따금 귀찮이를 하는것 외는 비교적 건장한편인元 할머니는 아침 7시에 일어 나 이곳의 동료할머니들과 산책을 하기도하고 일요일 에는 카를라평산노들이 찾

아와 함께 미사를 드리기 도한다. 그럴 그들의 신문 도 뒤집어보고 밤 9시 TV 뉴 스는 빠뜨리는 날이 없다. 이같은 일과중에서도 가장 기다리지는 시간은 매주 화요일의 에로토바시간과 토요일마다 열리는 게이트볼 게임.

일제때 中國 龍井으로 유학, 그곳의 大成堂을 졸업한 元할머니는 화창시 절부음을 의한한지 어 로비를 좋아하고 동료를 로부터 부러움을 살배가 가장 즐겁다고 한다. 또 게이트볼시간에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편

을 갈라 커피파기를 하는 데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한번도 지적이 없다. 그러나 무료함이나 고독 감이 엄습할때는 방장을 설치거나 매사에 활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元 할머니는 말한다.

『옛날엔 설날이 다가오면 보물전부터 제수음식선도 말리고 아이를 설빔준비를 하느라 뜰문으로 지새운적 이 한두번이 아녜니다. 그 러나 얼마전 이곳에서 설날 을 보내면서 해에 대한 회 의감과 고독감이 짙어 빠

저를기도 했어요』 元할머 니는 쓸쓸할때는 어린시절 과 결혼생활, 외아들의 성 장과정을 새겨둔 사진첩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지난연말에는 미국의 머 니리가 일시 귀국, 미국에 가서 함께 살고 권유하 기도했고 손녀가 내의를 사 들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럴때에는 혈통의 따뜻함 을 느끼는 것.

현재 裕堂마을 입주자는 모두 46명. 할머니 32명 할 아버지 14명. 이들중에는 5쌍의 노부부도 들어있 다. 이들은 대부분 연고자 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 도 노후를 편히 지내고 싶은 사람, 또는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 이곳을 찾아 온 사람들이다.

특히 요즘에는 세대간의 갈등과 핵가족화 추세에따 라 裕堂마을에 들어오려는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매월전 시부모와 함께 살기 싫다고 을독자살한 20 대주부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그런 행위는 人倫을 벗어난 부도덕한 것이지 요. 그러나 이같은 극단의 사태로까지 되지않도록 양 측이 신경을 썼어야지요』

<水原 南達成기자>